자기해방 위한 노력의 발자취

일리인의 「인간의 역사」

이 책은 러시아의 아동문학가이자 과학소설가인 미하엘 일리인과 그의 아내 알렉산드로브나 세갈의 공동저작이다. 일리인은 1895년 돈강 연안의 소도시 보르네츠에서 태어나 화학자인 아버지와 아동문학가인 형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후 그는 레닌그라드로 가서 공장근로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물리학과 수학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정식 공업전문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청소년층을 위한 과학서적이 의외로 드물고 그 내용도 난삽하기 이를데 없음을 절감하였다. 그는 가계로부터 받은, 다분히 천부적인 문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층을 위해 과학에 관한 쉽고 흥미로운 글을 아동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 연마공처럼 과학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는 그의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일리인은 기존의 서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시대적 한계와 자기해방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촛점을 맞춘 역사관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모든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재구성·평가했다. 그의 역사관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해방을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역사관에 기초하여 일리인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과학의 詩'라는새로운 예술양식을 개척하였다.

일리인은 1927년 최초로 저술한 「빛의 역사」를 비롯하여 1953년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사회·자연과학적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책들을 숱하게 남겨 文名을 널리 떨쳤다. 그의 저술 중 가장 압권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다. 이 책은 그간 부분적으로 발췌번역되기도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완역출판을 통해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 책의 원제는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나」로 선사편, 고대편, 그리고 르네상스 직전까지 기술된 중세편으로 구성된 20년이란 세월이 소요된 노작이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했으며, 자기해방을 위해 노력해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노동을 매개로 한 과학과 기술의 성장을 통해 인간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말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라는 물량적 증진에 치우친 역사가 아니라 진실로 인간의 제값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원제인 「거인」은 단순히 우월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인간을 뜻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숱한 사건과 인물들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라는 하나의 궤적에 연결되어 있다.

오늘과 같은 변화의 질곡 속에서, 이 변화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책은 안개 속의 외줄기 길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과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장창락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종교설화의 단순비교는 곤란

윤청광의 「불경과 성경」

요즈음 '예수는 불제자였다'라든가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등 예수의 생애 중에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수는 인도의 승려였다'는 論旨를 가지고 씌어진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직장생활 외에 남는 시간을 거의 '비교종교학'이라는 분야에 소비하는 내게는 꽤 흥미있는 책들이었다. 그중 특히 관심이 가는 책이 윤청광님의 「불경과 성경」이다. 원래 성경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종교이므로 웬만큼 알고 있고, 대학시절부터 불경에도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신앙(정신)과 '생활'이라는 현실(육신)과의 함수관계는 결국 어느 종교나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우리 생활자세의 개선이 없이는 종교 그 자체의 교리나 진리가 곧 낙원이나 천국으로 직행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불경과 성경」이라는 책은 꽤 고무적이다. 저자가 序言에서 밝혔듯이 '사람을 위한 종교'나 부패하는 성직사회와 종교간의 알력으로 빚어지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한번쯤의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 이 책은 종교가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이라는 자리를 지킨 채 행해지는 종교생활에 대한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진리를 불경과 성경 속의 내용비교를 통해서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작업들의—불경과 6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비교한 것—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전 속의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비유의 구조적인 기능이 거의 같다고 해서, 이 책의 副題처럼 어느 경전이 어느 경전을 베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민족신앙인 유대교 신앙을 모태로 파생된 新約시대를 예수의 출생만을 기점으로 삼아, 발생연대상 성경이 불경을 베꼈다고 얘기하는 태도는 좀 성급한 독단인 것 같다. 이는 타종교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 될 수 있으며, 작가 자신의 머리말과도 모순이 된다. 한 나라 안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영웅설화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정착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종교가 민족정신이나 생활습관 등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했다는 기초적인 출발점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연대기상의 先後로 모방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예전에 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던 원형비평 등을 동원하여 종교적 설화의 상징성을 단순한 사건이나 비유의 구조보다는 민족정신 내지 고유신앙과의 연계성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이 바른 비교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자

전북 김제군·만경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

朴景利文學全集 전33권

지식산업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02
☎ 734-1958·1978, 735-1216

韓國文學을 世界文學의 地平으로 끌어올린 《土地》의 作家 朴景利文學의 總結集!!

제1기 전10권
1 市場과 戰場
2 노을진 들녘
3 波市
4 土地(1부)
5 土地(1부)
6 土地(2부)
7 土地(2부)
8 가을에 온 女人
9 他人들
10 幻想의 時期(外)

제2기 전10권
11 金藥局의 딸들
12 漂流島／聖女와 魔女
13 土地(3부)
14 土地(3부)
15 창
16 Q씨에게
17 내마음은 호수
18 斷層
19 不信時代
20 永遠한 伴侶

제3기 전13권 이하 속간
21 푸른운하
22 은하수
23 녹지대
24 그 형제의 연인들
25 나비와 엉겅퀴
26 외곽지대
27 새벽의 합창
28 은하
29 土地(4부)
30 土地(4부)
31 土地(4부)
32 詩集
33 別卷

※ 21번부터 매월 1권씩 출간 예정입니다.